



LA에서의 한일전 2타이 시작됐다. 27일 오전(한국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제빙상경기연맹 2009 세계선수권대회 공식연습에서 한국의 김연아가 프리스케이팅에서 선보일 프로그램을 훈련하고 있다. /연합뉴스

## 피겨 퀸 김연아 “세계를 품어라”

### 오늘 쇼트프로그램서 아사다와 한·일 ‘피겨 대전’

어느새 시니어 무대에서 세 번째 만남. 하지만 예전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다. 금빛 도전을 가로막았던 부상도 없고 몸 상태는 말 그대로 최고다.

이제 김연아(19·고려대)가 2년 연속 3위 자리를 박차고 나와 ‘동감내기 라이벌’ 아사다 마오(일본)를 제치고 피겨 여왕의 자리에 오를 최적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김연아는 28일(한국시간) 오전 미국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스테이플스 센터에서 치러지는 2009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세계피겨선수권대회 여자 싱글 쇼트프로그램

을 시작으로 아사다와 본격적인 금메달 경쟁을 펼친다.

이번 대회는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 국가별 출전 티켓의 수가 결정되는 데다 김연아로선 처음으로 부상 없는 완벽한 조건에서 출전하는 대회여서 그 어느 때보다 금메달에 대한 욕구가 강렬하다.

더구나 최근 로스앤젤레스에서 끝난 월드컵네이션스컵(WBC) 결승에서 한국 대표팀이 일본에 패하면서 국내 스포츠 팬들 가슴을 아프게 만들었던 만큼 이제 김연아가 아사다를 이기고 승전보를 전해줄 차

레다.

김연아와 아사다가 세계선수권대회에서 맞대결을 펼친 것은 이번 세 번째다. 지난 2007년 첫 대결에서 일본의 안도 미키(22)가 우승한 가운데 아사다와 김연아는 나란히 2~3위를 차지했다.

당시 김연아는 극심한 허리 통증으로 대회 참가 자체가 불가능할 지경이었지만 진통제 투혼 속에 쇼트프로그램에서 ‘록산느의 탱고’를 연가해 역대 최고점(71.95점)을 잡아 치우는 기적을 일으켰다.

하지만 결국 부상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프리스케이팅에서 두 번이나 엉덩방아를 찧는 실수를 범하면서 끝내 동메달에 만족해야 했다. 2008년 대회 때는 고관절 통증이 김연아를 괴롭혔다. /연합뉴스

## 김인경 단독선두

LPGA 인터내셔널 1R

올해 처음 미국 본토에서 열린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대회에서도 강한 한류 열풍이 몰아쳤다.

27일(이하 한국시간)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의 파파고 골프장(파72.6천711야드)에서 열린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J골프 피닉스 LPGA 인터내셔널 1라운드에서 김인경(21.하나금융)이 단독 선두에 나서고 공동2위 그룹에 신지애(21.미래에셋), 지은희(23.힐라코리아), 박인비(21.SK텔레콤)가 포진했다. 특히 김인경과 신지애는 나란히 18번홀(파)에서 이글샷을 터트려 선두 그룹에 합류했다. /연합뉴스



28일(토)

▲2009 ISU 세계피겨선수권 여자쇼트(08:00·SBS)

▲축구 국가대표 평가전(한국:이라크)(18:45·KBS2)

▲08/09 프로농구 플레이오프 준준결승 1차전(KCC:전자랜드)(14:45·Xports·MBC ESPN)

29일(일)

▲2009 ISU 세계피겨선수권 여자프리(10:30·SBS)

### 허정무號 북한전 해법찾기 오늘 이라크와 평가전

‘북한을 공략할 최적의 조합을 찾아라.’

7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을 노리는 한국 축구대표팀이 북한과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 아시아지역 최종예선 홈 경기(4월 1일 오후 8시, 서울월드컵경기장)를 앞두고

이라크를 상대로 몸을 푼다.

26일 소집돼 손발을 맞추는 대표팀은 28일 오후 7시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이라크와 친선경기를 치른다. 이번 대결은 남아공행의 분수령이 될 ‘코리아 Derby’를 위해 준비

한 모의고사다.

한국은 남아공월드컵 아시아지역 최종예선에서 2승2무(승점 8)로 B조 1위에 올라 있고, 북한이 2승1무1패(승점 7)로 바짝 쫓고 있다.

한국에서는 안방에서 열리는 경기인데다 북한만 넘어서면 남아공을 향한 발걸음이 한결 가벼워질 수 있어 결코 물러설 수 없는 한 판이다. /연합뉴스

## 타선 침묵...KIA 두산에 또 졌다

### 홈 마지막 시범경기 2-7패

KIA 타이거즈가 27일 무등경기장 야구장에서 열린 두산 베어스와의 마지막 홈 시범경기에서 2-7로 패했다.

시범경기에 첫 선을 보인 투수 용병 로페즈는 두산 타선을 상대로 3이닝 동안 4개의 탈삼진을 뽑아냈으나, 5피안타 2사사구로 3실점 했다. 팀은 타선의 침묵과 잇단 실책으로 2-7로 저 3연패를 기록했다.

출발은 괜찮았다.

로페즈는 3번 왓슨에게 볼넷을 내주는 했지만 오재원과 김동주를 삼진으로 돌려세우며 1회를 막았다. 하지만 민병현의 중전안타로 3회를 시작한 로페즈는 1사 이후 안타와 볼넷으로 만루 위기에 몰렸다. 이후 4번 김동주를 2루수 앞 땅볼로 잡아냈지만

결국 연속안타로 3실점하며 마운드를 내려

왔다. 팀 타선은 상대 선발 노경은의 호투에 발이 묶였다. 5회 2사까지 노히트노런으로 끌려가던 KIA는 최경환의 내야안타로 간신히 공격의 포문을 열었지만 득점에는 실패했다. 7회 나지완의 장타가 완봉해 위기에 몰린 팀을 구했다. 선두타자로 나온 나지완이 우익수 키를 넘기는 2루타로 출루한 뒤 이성우와 김종국의 땅볼로 겨우 홈을 밟으며 1점을 만회했다.

수비도 두산의 완승이었다. 두산 내야수 김재호와 최주환이 멋진 다이빙 캐치로 안타를 막았지만, KIA는 3개의 실책으로 무너졌다. 4회초 1사 2루에서는 유격수 김선빈과 2루수 김종국의 악송구가 연달아 나오면서 2점을 헌납했다.

홈에서의 마지막 시범경기를 끝낸 KIA는 잠실구장으로 이동해 LG 트윈스와 2연전을 갖고 2009시즌 시범경기 일정을 마무리한다. /김여울기자 wool@

## 생활 게시판

### 화촉

▲박동욱·조순금씨 삼남 현욱군 소개식·윤순묘씨 사녀 수경양=28일(토) 낮 12시40분 광주교직원공제회관 3층 웨딩홀

▲이계열(전 보문여고 교장)·문경남씨 차남 창범군 조성현(청송건설·도곡스파랜드대표)·이매자씨 장녀 화순양=28일(토) 낮 12시30분 무등파크호텔 4층(컨벤션홀)

▲정춘섭씨 장남 진성만(금과광고 교사)·천 경(전 동부교육청 관리국장)·홍애순씨 장녀 효정(금호고 교사)양=4월4일(토) 오후 1시40분 메리어트웨딩홀 1층(에메랄드홀)

### 부음

▲곽대방씨 별세 김필성·필관·일관·

영순·영아씨 모친상= 발인 28일(토) 무등장례식장 102호. 062-515-4488

▲박순금씨 별세 김봉춘·형춘씨 모친상= 발인 28일(토) 무등장례식장 202호. 062-515-4488

▲현준우씨 별세 명환·수민씨 부친상= 발인 28일(토) 그린장례식장 10분향소. 062-250-4410

▲고은석씨 별세 영철(동해고산부인과원장)·영대(남코리아나이사)·정은·정미씨 부친상 김석일(조선대학교 의대교수)씨 부부상= 발인 29일(일) 조선대학교병원 장례식장 2분향소. 062-231-8902

▲최순열씨 별세 박해석·두심·양삼·윤삼·준섭·효섭·해월씨 모친상= 발인 29일(일) 그린장례식장 7분향소. 062-250-4407

▲김순덕씨 별세 김영배·영천·영주·영준(전 서구의회 의원)씨 모친상= 발인 29일(일) 무등장례식장. 062-515-4488

바탕화면 중심인물

# CBS

노컷뉴스는 CBS와 함께 만드는 무료 종합일간신문입니다

뉴스센터 : 02-3779-8000

## RADIO

100% 뉴스

11:00 ~ 12:00

12:00 ~ 1:00

1:00 ~ 2:00

2:00 ~ 3:00

3:00 ~ 4:00

4:00 ~ 5:00

5:00 ~ 6:00

6:00 ~ 7:00

7:00 ~ 8:00

8:00 ~ 9:00

9:00 ~ 10:00

10:00 ~ 11:00

가득교양속 친교호신 노컷뉴스

## CBS

080-600-1031